

民俗醫藥 傳統과 大邱藥令市 傳承文化*

朴敬庸**

목 차

- I. 머리말
- II. 민속의약 전통의 물질전승
 - 1. 약령시전시관의 소장 유물과 자료
 - 2. 약령시 업소 소장 유물과 자료
- III. 민속의약의 지식·기능전승
 - 1. 민속의약 지식·기능의 전승방식
 - 2. 비방과 한약재 감별지식
- IV. 전통 의약문화의 행위전승
 - 1. 약령시축제
 - 2. 약령제
- V. 맺음말

〈 요약 〉

필자는 민속의약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35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는 대구약령시(大邱藥令市)를 중심으로 전통의약과 관련한 유·무형 전승문화의 존재양상을 유물과 자료, 지식과 기능, 행위전승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대구약령시의 유·무형 전승문화는 약령시의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유형적 문화요소와 기능·지식·행위양식·규범 등의 무형적 문화요소를 총칭한다. 약령시 전승문화는 약령시 사람들의 생업활동과 관련된 물질전승과 기능·지식전승, 행위전승 등으로 대별된다. 물질전승은 한약재의 관리와 유통, 질병 치료를 포함하여 약령시 유지에 필요했던 각종의 물질적 증거들(material evidences)로서 약령시전시관과 한방 관련업소 등에 전시 및 소장되어 있다. 지식·기능전승은 한약재를 정선(세척·절단·건조·선별·작근)하여 저장·유통시킴은 물론 약으로 제조하거나 치료하는 등의 관련 지식과 기능을 의미한다. 이는 대부분 업소에 오래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성되는 전인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도제시스템에 의해 전승되어 왔다. 대구약령시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 및 전문 인력의 밀집과 수세대에 걸친 비전(秘傳) 등으로 많은 비방과 탁월한 약재 감별지식이 전승되고 있다. 약령시 행위전승은 약령시의 생활경험 및 문화사적 의의와 가치를 발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반복되는 행위의 여러 표상들을 제의적·기예적·오락적 차원으로 정형화한 것으로서 약령시축제와 약령제가 대표적이다.

이상의 사실처럼, 대구약령시는 민속의약 전통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자 민속의약의 저수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약령시 사람들의 생활경험과 기억을 포함하여 관련 물증들을 시·공간적 차원에서 수집·분류·해석하고 효율적으로 보존·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대구약령시, 민속의약, 물질전승, 기술(기능)·지식전승, 행위전승

* 이 글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약령시보존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약령시 구성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글을 읽고 유익한 논평과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접수일 : 2004. 10. 20, 심사일 : 2004. 11. 27, 심사완료일 : 2004. 12. 1)

I. 머리말

대구약령시는 조선 효종 9년(1658년) 약재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임의백(任義伯) 경상감사에 의해 대구읍성 안의 경상감영 서북편 바깥에 위치한 객사 부근에서 최초로 개설되었던 대표적인 전문 약재시장이다(권병탁 1992 : 95-101). 대구약령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만주, 대만, 남양, 베트남, 아라비아, 몽고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약재들이 교역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한약 물류유통의 거점이 되었다(文定曄 1941 : 165-179). 이와 같은 명성으로 인해 매년 봄(春令市)과 가을(秋令市) 2회에 걸쳐 약 1개월씩 개시되는 약령시의 출시자수와 매상고가 항시 대구의 인구와 예산을 능가할 정도였는데, 1940년의 경우 17만명의 한의약업인들이 모여 거래한 약재 매상고가 16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앞 책 : 164). 대구약령시는 특히 의약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에 약재를 효율적으로 매집·조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였다. 이처럼 대구약령시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시된 기간(1941~1944)을 제외한 350년 동안이나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 오면서 보건경제 및 민족사적인 측면은 물론 한방문화의 전승과 교육 및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와 가치를 지녀왔다(박경용 2001a). 따라서 대구약령시는 약재 매매시장으로서의 단순한 경제주체 기능 이상의 문화복합(culture complex) 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양의약의 발달과 근대화 논리에 따른 전통의 폄하, 수도권 중심의 물류 집중, 양의약 중심의 편향된 약사행정, 한·양약간 그리고 한의약계 내부의 업권 갈등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대구약령시의 존립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아울러 350년 동안 면면히 축적되어온 전통 한방문화, 달리 말하면 약재의 선별·정선·보관·운송·유통 및 한약 제조와 치료 등과 관련한 기술과 기능, 사상과 지식, 조직과 운영체계, 도구와 유물, 공간과 건물, 문서와 기록자료, 행위양식과 규범 등을 포괄하는 민속의약의 내용이 올바르게 정립·보존되지도 못한 채 사라져가고 있다(박경용 외 2001b). 이는 민중들이 이룩해낸 복합적인 삶의 한 축에 해당하는 민속의약 전통이 무관심 속에 그대로 방치·유실됨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약령시전시관(대구)을 비롯하여 한독의약박물관(충북 음성)과 가천박물관(인천), 동산병원 의료박물관(대구) 등 몇 곳에 전통의약과 관련되는 물증자료들이 다수 수집·전시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물증 중심의 나비채집식일 뿐만 아니라 자료 부족으로 체계적인 전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 인력의 부재로 민속의약의 지식 재생산과 교육, 홍보, 생산적 활용방안의 모색은 물론 온전한 보존기능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민속의약 관련 물증들은 박제화된 상태로 전시되고 있으므로 재원과 제작시기, 용도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만 적시될 뿐 물증의 맥락적이고도 상징적 의미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는 관련 물증이 전통적인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

해 탈기능화하여 생업활동 현장 및 사용주체와 완전 분리됨으로써 실제 의료생활의 총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백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공간에서 전통의약의 생업활동이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약방과 한의원, 약업사, 인삼사, 제탕원, 제환·제분소 등 350여 관련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대구약령시는 민속의약 전통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다.

지금까지 민속의약에 대한 연구는 장철수(2000 : 223)의 견해처럼, 민간과학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 박경용 2001b)와 논문(김성례 1978 ; 김태곤 1983 ; 김준권 1994)에 그칠 뿐이어서 불모상태나 다름없는 현실이다. 이 방면에서 행해진 관련 연구들 또한 의사(김두중 1979 ; 손홍렬 1988)와 민간의료(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 331-341 ; 1974 : 325-386 ; 1975 : 314-336 ; 1976 : 226-246 ; 1977 : 246-267 ; 1978 : 146-152 ; 1980 : 151-162 ; 1981 : 145-152, 김광일 1972 ; 김태곤 1983 ; 최길성 1984), 민속의료 관념과 관행(한상복 1977 ; 윤순영 1978 ; 김성례 1978 ; 전경수 1983 ; 박정석 1991 ; 김준권 1994 ; 김순미 1995) 등 의료 측면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약재관리와 유통, 한약제조, 질병치료와 관련된 물질적 증거와 지식·기능, 관행과 의례 등 민속의약 일반에 대한 총체적 시각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민속의약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 행위나 의약지식을 포함하는 관련 민속현상 자체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이론적 논쟁이나 지식생산을 지향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민속의약 전통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재고한다는 차원에서 민속의약의 보루이자 저수지이기도 하는 대구약령시를 중심으로 유·무형 전승문화의 존재양상을 유물과 자료, 지식과 기능, 행위전승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대구약령시의 유·무형 전승문화는 약령시의 고유기능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유형적 문화요소와 기능·지식·행위양식·규범 등의 무형적 문화요소를 총칭한다. 이러한 약령시 전승문화는 약령시 사람들의 생업활동과 관련된 물질전승과 기술(기능)·지식·규범 및 행위전승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약령시 물질전승은 전시관과 업소 등 약령시 일원에 유존하는 전승 도구와 문서, 건물, 공간, 자료 등 제반의 관련 물증을 포함한다. 약령시의 지식·기능전승은 한약재를 정선(세척·절단·건조·선별·작근)하여 저장·유통시킴은 물론 약으로 제조하거나 치료하는 등의 관련 지식과 기능을 의미한다. 약령시 행위전승은 주기적인 개설과정과 관련되는 행위양식의 여러 측면들을 '축제'의 문맥 아래 제의적·기예적·오락적 차원으로 정형화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정리·서술되었다. 제2장에서는 약령시 전시관과 한방 관련 업소 등에 전시 혹은 소장되어 있는 유물과 자료를 중심으로 민속의약 전통의 물질전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을 통해서서는 약령시의 민속의약 지식과 기능의

전승양상을 비롯하여 약령시 한방전문인의 비방(秘方)과 한약재 감별지식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제4장에서는 수백 년간 지속되어 왔던 약령시 개장행사의 전통을 바탕으로 1978년 이후 한방 문화축제의 형식으로 재현되는 약령시축제 및 약령제(藥令祭) 내용을 중심으로 전통의약 문화의 행위전승을 검토해 보려 한다.

필자는 2000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약령시전시관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약령시 한방문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때 필자는 약령시 활성화 사업과 약령시축제 행사는 물론 약령시보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가운데 약령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줄곧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할 수 있었다. 이는 일상생활과 연구 활동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완전한 참여관찰'(Spradley 1988 : 85-86)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글에 활용된 대부분의 자료들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필자가 직접 접하여 수집한 참여관찰 자료와 구성원과의 면담 자료, 약령시보존위원회의 각종 내부문서 등에 기초하고 있다.

II. 민속의약 전통의 물질전승

대구약령시의 민속의약 물질전승은 약재의 생산과 채취·관리·유통 및 한약제조, 질병치료 등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각종의 의약기를 비롯하여 문서와 기록물, 표본약재, 관련 인물상과 시설의 재현 등과 같은 제반의 유형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이들 물질전승은 시간 경과에 따라 차츰 그 기능이 약화되어 실용적 가치는 적지만, 약령시의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오래 동안 약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동반하였으므로 약령시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해준은 물론 민속의약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1. 약령시전시관 소장 유물과 자료

현재의 약령시전시관은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한약재상설전시관과 한약재도매시장이 통합되면서 1993년 현재의 이 곳으로 확장·이전된 것이다. 유물과 자료는 약 1,000여 점으로서 도입부와 재현부, 서적부, 약재부, 기구부, 생화분전시실, 약초사진부 등으로 나뉘어 전시되고 있다. 이들은 고서적 37종 140책과 한약기구 55종 171점을 포함하는 626점의 상설 전시 유물·자료와 150점의 생약초, 240점의 수장고 유물·자료로 대별된다. 이들 전시유물과 자료들은 약령시 전시관 개관을 위해 별도로 수집된 것이지만, 일부는 대구약령시에서 오래 동안 한의약업에 종사해온 사람들로부터 기증되었다¹⁾.

626점의 전시유물과 자료는 고서적 37종 140책과 한의약 도구 55종 171점을 비롯하여 표본 약재 180점(생약표본 31종 45점, 건조약재 99종 101점, 독약·극약·극성약 17점, 희귀약재 17점), 처방약 11점, 박제 10점, 기타·보조전시물 114점 등이다. 전시효과와 제고를 위해 2~3년마다 한 번씩 전시물을 지속적으로 보완·교체할 요량으로 240여 점의 유물·자료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기도 한데, 고서적 5종 25책과 표본 약재 79종 93점, 박제 3점, 한약도구 27종 36점, 기타(패널·액자) 83점, 약초꽃사진 60여점 등이다²⁾.

이들 물질전승의 내용들을 전시공간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입부]는 ‘약령시전시관’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전시관 입구의 전통 목조문과 계단 벽면의 허준 초상을 비롯하여 대구약령시의 유래와 역사를 말해주는 관련 지도와 사진, 설명 패널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 인물 관련 유물과 자료 4점(초상 3점, 흉상 1점), 약령시 관련 지도와 사진자료 8점(전국 약령시 지도 1점, 대구약령시 지도와 사진 각 2점과 5점), 조선시대 약재생산 현황 관련 지도 2점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의약 인물 관련 유물과 자료는 허준과 이재마, 신농염씨 초상과 설명 패널, 허준 흉상과 『동의보감』 설명패널 등이 각각 1점씩 전시되어 있다. 약령시와 한의약의 유래와 역사를 전해주는 지도와 사진자료로는 한의약과 약령시 설명패널 및 연표 각 1점, 대구약령시 설명패널(한·영) 2점과 연표 1점, 현재의 약전골목 지도 1점, 대구읍성도 1점, 약령시 사진자료 5점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시대별로 전시한 사진자료 5점은 대구약령시가 열렸던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조선시대 생산약재 분포도’와 ‘조선시대 각 도별 유일 생산약재 분포도’ 등의 자료는 대동여지도를 이용하여 전국 8도의 약재 생산현황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있다.

[재현부]에는 100년 전의 전통 한약방 모습이 밀랍인형과 유물, 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물크기의 모형으로 만들어져 전시되고 있다. 기와 처마와 목재 마루를 만들고 한약방 문간 위에는 ‘博施濟衆’, ‘求藥三神以廣濟以施人’의 글귀를 서각한 목재 현판이 걸려 있다. 한약방 옆에는 어느 여인네가 금줄을 친 신목(神木) 앞에 촛불과 치병수(治病水)를 올려놓고 가족의 병이 낫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재현되어 있어 과거 우리 조상들의 주술적 치병관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한약방 마루에는 종사자가 한복 차림으로 약연(藥碾)에 약을 갈고 있으며, 부엌

- 1) 기증 유물과 자료 및 기증자들로는 거북이 박제(서병국), 녹각(이석동), 감초 표본(강동효), 알래스카산 녹용(이점식), 산삼 액자사진 2점(이병태), 약초 슬라이드필름(신진휘), 소천지도·병풍(이영주), 약고리(유순희), 약장(류재덕), 현판 글씨(이용복), 약저울·조리(최중대), 금속 한약재 21점(서중환), 약장 및 고서적 10종 29책(김수영) 등이다.
- 2) 이 중 의약기구와 한의약 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기구는 약탕기 6점, 약즙기 2점, 약틀 1점, 산통 1점, 복령꼬챙이 4점, 바가지 1점, 술 1점, 부삽 1점, 약연 1점, 약순가락 1점, 탁잔 1점, 약짜는 대 1점, 소반 1점, 대나무통 1점, 환약제조기(상) 1점, 조새 1점, 침 26점, 강판 1점, 약채취기 1점, 책 넘기기 1점, 약 주걱 1점, 약사발 1점, 이남박 1점, 허준 초상화 1점, 약 쇠스랑 1점, 약 호미 1점, 자동포장기 1점, 산삼 사진액자 1점 등이다. 한의약 고서는 『醫方活套』1책, 『東醫寶鑑』21책, 『病理提綱』1책, 『抄覽』1책, 『醫鑑目錄』1책 등이다.

에는 여인네가 약탕관에 약을 정성스럽게 달이고 있다. 방 내부에는 의원이 환자를 진료한 후 처방한 화제(和劑 : 처방전)에 따라 첩약을 싸고 또 다른 종사원이 약작두로 약을 썬 모습들이 재현되어 있다. 한약방 내·외부에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수많은 약봉지를 비롯하여 약장과 한의약서, 약절구와 같은 한의약 관련 유물과 자료 및 소반과 조리, 반닫이 등의 생활가구들이 조화롭게 전시되어 있다³⁾.

[서적부]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편찬된 한의약 관련 고서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다. 전시되어 있는 고서자료는 허준의 『동의보감』 25책을 포함하여 모두 16종 54권인데, 자료 내용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상의 한의약 고서 중 『三國遺事』, 『百濟新集方』, 『鄉藥採取月令』 등의 자료들은 원본을 구하지 못해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과 내용을 적시한 패널 중심으로 전시했다. 『丹霞秘訣』 1책과 『萬金一統』 1책, 『藥掌記』 1점, 『婦人門』 1점 등은 약령시에 있는 대구광역시 한약업사회 사무국장인 김수영(78세)이 그의 조부로부터 물려 받은 자료들을 기증한 것(10종 29책) 중의 일부인데, 그의 조부 김정한(金鼎漢; 1855-1941) 선생은 조선 후기 철종 때 전의(典醫)를 지낸 바 있다. 이 외에도 『東醫寶鑑』 25책과 『醫學入門』 4책, 『醫方活套』 1책, 『保有新編』 1책, 『濟衆新編』 4책, 『證脈方藥合編』 1책, 『廣濟秘笈』 1책, 『景岳全書』 8책, 『鄉藥集成方』 2책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약재부]에는 생약초와 건재약 표본을 비롯하여 녹용 표본, 동물박제, 희귀약재, 광물약재 등이 설명패널 및 사진자료와 대비하여 비교·전시되고 있다. 각각의 표본자료에는 약재의 원산지, 식물명과 한약명, 기미(氣味), 효능 등을 적은 명찰을 부착함으로써 교육적 효과까지 도모하고 있다. 한약초와 건재약 표본을 상호 비교하여 전시한 자료는 초오(草烏)와 고본(藁本)을 비롯하여 28종인데, 이 중 백출(白朮)과 길경(桔梗)은 식물약초 표본과 『本草綱目』에 수록된 사진과 함께 상호 비교하여 전시되고 있다. 파극천(巴戟天)과 청상자(靑箱子), 천문동(天門冬) 등 59종의 약재들 중 『본초강목』에 수록된 사진과 함께 상호 비교하여 전시되고 있는 산사(山査), 사삼(沙蔘), 익모초(益母草), 복분자(覆盆子), 구맥(瞿麥) 등 5종을 제외한 약재들은 약초실물 표본과 사진자료 없이 약재만 전시되고 있다. 특히 인삼의 경우, 생장단계별(1~6년)

3) 재현된 옛 한약방 내부에 전시된 품목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가재도구와 의약기구로는 솥대 2점, 마네킹 5점, 바가지 1점, 이남박 1점, 약탕관 4점, 약당 1점, 약고리 1점, 약사발 10점, 누트릇 6점, 누숫가락 9점, 조리 2점, 소반 2점, 무쇠술 1점, 화로 2점, 부삽 1점, 부젓가락 1점, 단지 3점, 삼태기 2점, 약절구 1점, 맷돌 1점, 약연 3점, 안경 1점, 약저울 1점, 약장 3점, 약함 2점, 약통 1점, 허준상 1점, 연상 1점, 사방탁자 2점, 백자호 1점, 부채 1점, 갓집 1점, 약작두 1점, 반닫이 1점, 등잔·등잔받침 1세트, 소천지도 1점, 병풍 1점, 다래끼 1점, 채반 1점, 밀개 1점, 종다래끼 1점, 안경집 1점, 버루 1점, 연적 1점, 인조목 1점, 돛자리 1점, 가옥 1점, 현판 2점 등이다. 한의약 고서적 15종 61권은 『東醫寶鑑』 23책, 『鍼灸經驗方』 1책, 『小兒醫方』 1책, 『醫門寶鑑』 1책, 『醫方要抄』 1책, 『秘方』 1책, 『萬病回○方』 1책, 『鍼灸經』 1책, 『藥性歌』 1책, 『藥性引經』 1책, 『神農遺業』 1책, 『醫宗損益』 5책, 『醫方要覽』 1책, 『重訂方藥合編』 1책, 『醫學入門』 13책, 『景岳全書』 21책, 『馬評王氏外科症治全生集』 1책, 『袖診經驗神方』 1책, 『東醫寶鑑卷之二』 1책, 『秘本外科百效全書』 1책, 『濟衆新編』 1책, 『驗方新編』 1책, 『春鑑錄』 2책, 『醫學入門』 5책, 『劉爾泰麻疹方』 1책 등이다.

로 견재와 실물사진 및 실물표본이 비교 전시됨은 물론 인삼의 최초 재배지로 알려진 충남 금산군 금성면에 소재한 개삼각(開蔘閣)과 인삼밭, 인삼꽃과 열매, 『本草綱目』속의 인삼 사진, 8년산 장뇌삼, 산삼, 홍삼 등의 자료들과도 연계하여 전시되고 있다.

약재부에는 또한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과 공진단(供辰丹), 오약순기산(烏藥順氣散), 쌍화탕(雙和湯), 생맥산(生脈散), 인삼양위탕(人蔘養胃湯), 육미지황원(六味地黃元),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 만금탕(萬金湯) 등 11종의 주요 처방약 표본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이는 화제에 적시된 약재의 종류와 양만큼 칸막이로 된 나무상자에 각각 넣어 전시함으로써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한약처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응급약과 고급 보약으로 널리 애용되어온 우황청심원과 공진단의 제조과정이 사진자료를 통해 차례대로 전시되고 있다. 전자는 ‘약연에 가는 모습’과 ‘절구에 약재 뺑기’, ‘서각 가는 모습’, ‘체로 치는 모습’, ‘사향 가는 모습’, ‘환 만들어 금박 입히기’ 등의 순서로 전시되어 있다. 후자는 ‘녹용 썬는 모습’과 ‘약연에 가는 모습’, ‘환약 만드는 모습’ 등의 순서로 전시되고 있다.

[기구부]에는 한약재의 생산과 채취·유통, 한약제조, 질병치료 등과 관련되는 각종의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에 의해 일상생활 도구의 일부로서 활용되어 오던 전통 의약기이다. 전통 의약기는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크게 채약도구와 약연기, 약성주기, 약탕기, 약장기, 제약기, 약도량형기, 의료기기 및 의료보조기구 등으로 분류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 270-362).

약령시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통 의약기는 주로 채약 및 제약, 저장, 계량, 휴대, 침술 등의 기능과 관련된다. 채약도구로는 약망태기 1점과 약쇠스랑 2점, 복령꼬챙이 2점, 약호미 3점 등이다. 제약기구로는 이남박 1점과 약작두 2점, 약강판 1점, 약절구 3점, 약연 3점, 약맷돌 1점, 초두 1점, 조두 3점, 약풍로 1점, 약술 1점, 약당 2점, 약고리 1점, 약탕관 3점, 환약제조기 1세트(4점), 약틀 1점 등이다. 저장·계량·휴대기구에는 약장 2점과 약저울 2종 8점(각 4점), 휴대용 환약통 6점 등이다. 침 도구에는 장침과 대침, 호침, 시침, 피침, 봉침, 원리침, 참침, 원침 등 9침과 침통세트 6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전통 의약기구와 병행하여 벽면에는 ‘약초 캐는 모습’ 및 김홍도의 ‘신선도’(神仙圖)와 비교한 ‘약초 지고 가는 모습’을 비롯하여 ‘약 달이는 모습’과 ‘약 짜는 모습’ 등 4종의 사진자료와 한방에서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자리에 경혈을 그린 침구경혈도 4점이 각각 전시되어 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무당은 질병을 치료하는 무의(巫醫)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았다. 『세종실록』11년 4월 8일조에 나오는 예조 기사를 보면, 실제로 지방에 역병이 창궐했을 때 임금이 교지를 내려 의원과 무의로 하여금 공동으로 질병퇴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이덕일·이희근 1999 : 197-204). 이는 중앙과 지방의 공립 의료 기관이었던 활인서와 지방의원에 의원과

무당을 정규 의료원으로 배치하여 질병퇴치에 공동으로 대응했던 사실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손홍렬 1988 : 185, 195),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질병이환 및 치유를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거하여 해석하고 대처하려 했던 당시 세계관의 일면을 반영한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약물치료와 수술적인 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속의료가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던 바, 약령시전시관의 [민속의료실]에도 마마 배송굿과 삼눈·염병·종기 치료법 등의 민속의료와 관련되는 사진자료와 설명패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약령시 전시관의 2층 식물원과 옥상 2곳에는 약 320여 종의 약초들이 재배 및 전시되고 있다. 이는 차츰 시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자생약초의 보존과 전시는 물론 약령시 축제행사 중의 하나로 실시되는 ‘약초꽃동산 조성’ 행사를 위한 자료 확보 등의 여러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들 약초들은 종자보존은 물론 내부에 전시된 각종 약재 자료와의 연계 전시효과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약령시 전시관에는 100여 점의 약초 꽃 사진이 전시 및 소장되어 있다. 이 중 41점은 전시관 복도 양편 벽면에 전시되어 있고, 60여 점은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다. 전자의 자료들이 상설 전시되는데 비해 후자의 자료들은 약령시축제의 ‘약초꽃전시’ (약초화분·분경)와 ‘약초꽃동산 조성’ 행사 등과 연계하여 일시적으로 전시된다. 생약초의 경우처럼, 모든 약초 꽃 사진에는 약초명과 식물명, 약용부위, 기미, 효능, 이용방법 등을 적은 명찰을 부착해 놓음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자생약초 꽃의 아름다움과 그 약리적 지식을 전하고 있다.

2. 약령시 업소 소장 유물과 자료

대구약령시 한방업소에 소장되어 있는 한방유물과 자료들은 약령시 운영과 약재관리 및 유통, 처방과 치료, 한약조제 등과 관련되는 것들을 포함하여 한방 고서적과 장식물(그림·사진·액자·족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약재의 정선·관리·유통·저장기능과 관련되는 물증으로는 약재를 저장·보관하는 약장과 약통, 작근을 위한 약저울, 약 부스러기를 걸러내는 약체, 계산용의 나무주판 등이 있다.

약재를 저장하는 약장은 약단지와 약병, 약합, 약합, 약주머니, 약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약저장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활용되고 있는 용기이다. 약장은 유실수를 비롯하여 오동나무와 소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제작되는데, 보통 150~300종의 약재가 보관 가능하다. 약장 맨 아래 부분에는 별도의 큰 칸을 만들어 인삼과 녹용 등의 귀중약이나 독극약을 비롯하여 약저울과 약종이 등을 넣어두기도 했다(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 274-275). 소장자인 한약업사나 한의사의 경력 및 가업계승 여부에 따라 약장의 제작시기가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100년을 상회하여 유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도 있다. 예를 들면, 3대째 약전골목에서 한약업을 계승해온 <광신한약방>(이용식)의 경우 조부 때부터 사용

해운 약장이 2개 소장되어 있으며, 조부의 한약업을 계승한 <대제한약방>(최찬영)의 경우에도 감나무로 제작한 100년 이상 되는 약장이 1개 소장되어 있다. 약령시에는 이 외에도 제작시기가 80년인 것이 2개(<창신한약방>), 60년인 것이 1개(<삼보한약방>), 50년인 것이 4개(<신성균한의원> 3개, <성주강한약방> 1개) 소장되어 있다.

약통은 많이 쓰이는 약재 중 약장에 보관하고 남은 것을 저장해 두는 용기 중의 하나로서 나무 및 합판으로 제작한 사각형 혹은 원형의 것이 있다. 오래 전에는 짚으로 만든 섬이나 가마니, 봉태기 등을 많이 활용했으나, 한약재 규격화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은 대부분의 약재를 밀폐된 규격봉투에 넣어 진열장에 쌓아두거나 규격화 대상이 아닌 일부 약재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통을 활용하고 있다. 약전골목에서 3대째 한약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대구한약방>(최종대)의 목재 사각 약통과 <세창한의원>(장영상)의 원통형의 약통은 형태나 제작시기 등으로 보아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이들은 지금도 약재를 보관하는 용기로 활용되고 있는데, 제작 시기는 각각 80년과 50년 정도 된다.

약저울은 약재의 무게를 측정하는 약 도량형기 중의 하나로서, 용량에 따라 분(分)저울, 돈(錢)저울, 냥(兩)저울, 근(斤)저울, 대저울 등으로 분류된다. 첩약 단위의 소매과정에는 분·돈·양저울이, 그리고 도매과정에는 근·대저울이 주로 사용되었다. 5종의 저울 중 앞의 4종은 1인이 사용가능한 손저울인 반면, 대량의 약재 무게를 측정하는 대저울은 최소한 2명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저울대는 나무로 만들어지며 저울추는 쇠로, 그리고 약재를 담은 부분은 양철판(손저울) 혹은 쇠갈구리(대저울) 등으로 만들어진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업소들에서는 이를 소장하지 않지만,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일부의 경우에는 선고의 유품으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3대째 약전골목을 지켜오고 있는 <대구한약방>(최종대)의 경우에는 5종의 약저울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데, 냥저울 2개와 근저울 1개는 조부 때부터 사용해온 것으로서 약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 밖에도 약령시의 10여 업소에 약 30여 점의 각종 약저울이 소장되어 있다. 기타 관련 물증으로는 약 부스러기를 걸러내는 약체 6점과 약방 나무주판 2점이 소장되어 있다.

한약을 조제하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자료들로는 약방문(藥方文 : 方文, 和劑)을 비롯하여 약연과 약틀, 약강판 등의 각종 제약기와 침, 수술용 칼, 배밀이, 부황단지, 동인(銅人)과 동인도(銅人圖) 등이 있다. 이 중 약령시에 소장되어 있으면서 유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로는 몇몇의 약방문과 약연, 동인도 등이다. 약방문으로서는 모동의원(김현식)의 증조부가 경험방을 모아 책으로 편집해 놓은 『臨中秘訣』(상·하) 및 『寒熱〇抄』가 대표적인 자료이다. 이는 조선말에서 일제 강점기 초에 걸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환자들의 증상과 치료방법들을 적시해 둔 것으로서, 제작 시기가 100년을 상회한다. 이 외에도 <우신한약방> 김철수의 선친 약방문(1950~60년대)과 <대제한약방> 최찬영 조부의 약방문, <광신한약

방) 이용식 조부의 약방문(『和劑』), 옛 <일선당한약방> 노시하(작고)의 약방문 등이 소장되어 있다. <본초당한약방>(박병훈)에도 일제 강점기(1943년) 의생(醫生)의 처방전이 1점 소장되고 있으며, <향일한약방>을 경영하는 최종만은 63년 동안 자필로 기록한 화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한약 조제와 관련된 물증으로는 약재를 빻는 약연과 약절구, 약재를 볶고 찌는 초기(炒器)와 증기(蒸器), 약틀, 약맷돌 등이 극소수 남아 있다. 9점의 약연은 돌(5점)과 나무(2점), 나무와 쇠(2점) 등으로 제작되었다. <신성균한의원>에는 쇠로 제작된 약절구 1세트(약절구·약공이·뚜껑)가 소장되어 있는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지금은 제약회사에서 어느 정도 법제(法劑: 修治)가 되어 나오지만, 예전에는 모두 업소에서 약을 찌고 볶고 절이는 등의 법제를 행하였다. 관련 유물로는 초기 5점(<창신한약방>, <광신한약방>, <성심한약방> 각 1점, <신성균한의원> 2점)과 증기 1점(<성심한약방>) 등이 소장되어 있다. 약을 찌는 기구인 약틀은 <백초당한약방>에서 장식용으로 전시해둔 나무로 제작된 1점이 유일하다. 약맷돌은 <대제한약방>에서 소장하고 있는 돌로 제작한 것이 역시 유일하다.

한방 관련 그림과 사진·액자·족자 등은 대부분 각 업소의 벽면에 부착되어 인테리어와 한방업소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림과 사진자료는 한약의 시조로 간주되는 염제신농의 초상(<오성한의원> 1점, <창신한약방> 1점)과 ‘헌수도’(獻壽圖, <본초당한약방> 1점), 150년 인삼근(<본초당한약방> 5점), 육중용(肉蓯蓉) 약초(<대구한약방> 1점), 백두산 자생 약초(<백초당한약방> 12점) 등이다. 특히 <백초당한약방>의 신전회는 20여 년 동안 백두산을 포함한 전국의 산야를 누비며 촬영한 600종 20,000여 점의 사진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약령시 한의약업자들은 의약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질 것과 약재의 소중함을 항시 인식함으로써 관리와 사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처신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당수의 액자를 소장하고 있다. 이들은 ‘神農遺業’, ‘金丹妙藥’, ‘仙藥得命’, ‘百草根源’, ‘博施濟衆’, ‘徑藥濟世’, ‘手到回春’, ‘百草有靈’, ‘仙藥神通’, ‘壽山福海’, ‘着手成春’, ‘百草皆有精’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업이나 이사 때 지인들로부터 기증 받거나 혹은 특별히 제작하여 소장하는 것들이다. 일부 업소에서는 한방원리를 적시한 ‘소천지도’(小天地圖: <대구한약방>)나 중국 의성의 의학적 시구를 족자(<본초당한약방>)로 제작하여 소장하고 있다.

한약방이나 한의원은 대부분 『東醫寶鑑』을 비롯한 『濟衆新編』, 『醫學入門』, 『方藥合編』, 『萬病回春』 등의 기본 의약서를 포함하여 『景岳全書』, 『醫方活套』, 『論證醫訣』, 『辯証壽聞』 등과 같은 한방 고서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소장본 중에는 활자 인쇄본을 비롯하여 영인본, 필사본 등 여러 종류의 것이 있지만, 그 중에는 원본과 희귀본 등 그 소장가치가 높은 자료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백초당한약방>의 신전회는 대구약령시에서 가장 많은 한방 고서적을 소장하고 있는데, 약령시축제 때는 소장 자료 일부를 ‘한의약고서특별전’ 행사의 일환으로 전시

하기도 했다. 그가 소장하고 있는 한의약 서적은 한방 고서적 100여종 500여권을 비롯하여 한의약 전문서적 150여권, 약초·식물 관련서적 300여권 등 약 1,000여권에 이른다⁴⁾.

대구약령시 업소의 소장자료 중 약령시 운영관계를 엿볼 수 있는 1960년대의 '대구한약시세표'와 '1·3주 일요일 정기휴일' 표시판 등의 자료가 남아 있다. '대구한약시세표'는 <천일한약방>(이점식)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서 1968년 9월 5일자로 발행된 87번째 것이다. 당시 약령시 사람들은 광복 이후 잠깐 동안 열리다 중단된 약령시를 부활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던 터였는데, 그 일환으로 대구약령시 시세조정위원회를 조직하여 1961년 7월부터 매월 약령시의 한약시세를 조정하여 제작한 '한약시세표'를 배포하였다. '한약시세표'에는 당시 유통되던 300여 종의 한약재 약명과 변동단가가 매월 고시됨은 물론 한약방 광고도 게재되었다. 당시 한약단가는 보편적으로 1근(=600g)을 기준으로 하되 고가의 약재는 1냥(=375g)을, 그리고 토사향(土麝香) 등과 같은 가장 귀한 약재는 1푼(=0.375g)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파극(巴戟) 등과 같은 품질약재는 '貴'자로 표시하였다. <천일한약방>에서는 이 자료를 2001년 개장 제344주년을 기념하는 약령시축제 때 한약노점에다 약령시 홍보를 위해 전시하였다. 이는 당시 사용약재의 종류와 수, 약가, 약재사용 빈도, 희귀약재 현황, 한약방 상호 등을 포함하여 현재 상황과의 비교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어 자료 가치가 크다. 아울러 시세표 한쪽에는 약재 우편배달 요금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데, 이는 당시 약령시에서 전국으로 약재가 우편을 통해서도 많이 유통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최대 6kg으로 1개 포장무게가 제한되었으며 1kg 50원을 기준으로 하여 1kg이 추가될 때마다 30원씩 요금이 증가되었다.

<창신한약방> 기둥에 걸려있는 '1·3주 일요일 정기휴일' 표시판은 당시 대구한약협회에서 목판(가로 20cm×세로 40cm)에다 붉은 글씨로 제작하여 약령시 각 업소에 배포했던 일종의 고객용 알림판이다. 약령시 사람들은 당시 정기휴일로 정한 1·3주 일요일에는 이것을 업소 문 칸에 내걸었다. 언제부터 최초로 정기 휴일제를 채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의 '대구한약시세표'에 '1·3주 일요일을 정기휴일로 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60년대에 이미 실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요일 격주 정기휴일제는 3~4개월 시행되다가 곧바로 폐지된 후 다시 매월 1회 정기휴일제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1990년대 들어 비로소 일요일 상시 정기휴일제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대구약령시의 정기휴일제 정착

4) 소장하고 있는 한방 고서적 중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東醫寶鑑』(2집 50권), 『醫學入門』(2집 38권), 『濟衆新編』(2집 8권), 『皇素文』(1집 12권), 『萬病回春』(1집 9권), 『醫宗損益』(1집 7권), 『鄉藥集成方』(1집 8권), 『無冤錄』(1집 2권), 『保幼新編』(1권), 『方藥合編』(1권), 『醫方活套』(1권), 『東醫壽世補』(1권), 『癩疹扁』(1권), 『醫衆秘訣』(1집 2권), 『癩疹濟生方』(1집 2권), 『劉爾春癩疹方』(1권), 『春鑑錄』(1집 2권), 『茶山先生妙方』(1권), 『鬼車』(1권), 『靑囊訣』(1집 3권), 『痘科彙編』(1집 3권), 『婦人良方』(1집 10권), 『纂要方』(1집 9권), 『山林經濟』(1권, 필사본), 『重証方藥合編』(1권), 『救荒方』(1권), 『遠生秘書』(1권), 『癩疹要方』(1권), 『農家直說』(1권), 『運氣行論』(1권, 필사본), 『醫方要鑑』(1권), 『本草綱目圖鑑』(1권), 『本草秘要』(1권), 『癩疹秘方』(1권), 『救荒補遺方』(1권, 필사본), 『銅人經』(1권, 필사본), 『救急新方』(1권), 『春方妙訣』(1권).

과 관련한 약령시 노사관계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⁵⁾.

Ⅲ. 민속의약의 지식·기능전승

대구약령시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한약재의 효율적인 매집과 유통에 있었으므로 그와 관련되는 정보수집 및 상(商)기술을 비롯하여 한약재의 감별과 정선·관리·수치·제조 등의 기능과 지식이 중시되었다. 한약재는 표준화된 관리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수백 종에 이르는 국내외의 다양한 약재를 다루는 약령시 사람들에게는 일차적으로 육안과 맛, 냄새, 촉감 등 오감을 통한 산지별(국산·외국산), 계절별, 약성·효능별, 진위별 감별능력이 요구되었다. 아울러 약재를 알맞게 세척·절단·건조시킴은 물론 작근하여 효율적으로 저장·보관하는 약재 관리 기능을 포함하여 한방 전문인들의 환자들에 대한 처방과 침구술·부황 등의 치료기술 또한 약령시 한방 기술·지식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약령시의 한방 지식과 기능은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한 모든 무형의 지식체계와 기능을 총칭한다. 이는 약령시 사람들이 한약재를 매개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무형의 자본으로서 장기간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획득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무형의 민속의약 지식과 기능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학습 및 전승되는가를 먼저 살펴본 후, 비방(秘方)과 한약재 감별지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민속의약의 지식·기능의 전승방식

대구약령시 사람들은 정규 교육시스템과 전통적인 도제식(徒弟式)에 의해 한방지식과 기술(기능)을 습득해 왔다. 전자는 별도의 학습공간과 커리큘럼, 교재, 전문 교수인력 등을 구비한 공·사교육기관(대학·학원)을 통한 공식적인 학습방법이다. 후자는 한약방이나 한의원 등 한방관련 업소의 일상생활과 전인적 관계에 기초한 비공식적인 학습방법이다. 전자는 단기간의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는 반면, 후자는 장기간의 생활경험을 통한 오감과 반복학습으로 체득된다. 현재 대구약령시에서 한의원이거나 한약방을 경영하고 있는 연로한 70대 이상의 일부 구성원들은 한의약 관련 대학(동양의약전문학교·동양대학관·서울한외과대학)이나 전문학원(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수도의학전문학원) 등을 통해 한방지식을 습득한 후 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였다. 전자는 뜻있는 일부 한의약업인들이 광복 이후 지속된 양의약 위주의 의

5) 실제로 당시 약령시에는 한방관련 업소 종업원 단체인 약전회(藥廬會)를 중심으로 일요일 휴무쟁취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박경용 외, 2001b. 『대구약령시 한방문화 연구』(대구:대구광역시·약령시보존위원회) 194.

료정책에 대응하여 한의약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던 사설 교육기관이다. 625 전란 중에는 부산에 임시교사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는데, 수강생들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검정시험을 거쳐 한의사 혹은 한약업사로 진출하였다⁶⁾.

대구약령시에도 1950년대~1960년대에 걸쳐 실시된 한의사 및 한약업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동양의학전문학원' 혹은 '동양한약학원' 이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는 <대남약국>의 여원현(작고)과 <활신한의원>의 정규만(작고) 등이었다. 특히 여원현은 제일교회 맞은편에 <이가한약방>을 경영하고 있던 이종필(작고)과의 절친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그 곳의 일부 공간을 학원으로 활용하였다. 수강생들은 한약방이나 한의원 등에 종사하면서 한약재 실물지식을 익히고, 일과 후의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여 1~2년 과정의 이론수업을 받았다. 강사들 또한 한약방과 한의원 등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한의약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비공식적인 학습과정은 한의원과 한약방을 비롯한 관련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오감을 통해 한방지식을 체득하는 방법이다. 달리 말하면, 오랜 기간 동안 한방업소에 근무하면서 약재를 눈으로 면밀히 관찰함은 물론 만지고 썰고 냄새를 맡아보고 맛보는 등의 과정을 거쳐 약재에 대한 식별능력과 관련 기능을 익혀 나간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과 학습을 병행하였다. 이들에게는 세척·건조·절단·작근·포장 등 약재관리가 가장 큰 일거리였는데, 최상의 약성 유지를 지향하는 반복적인 작업과정은 무의식적인 학습효과를 낳았다. 아울러 일과 후의 잔업이 없는 날이면 '약성가'(藥性歌)를 외거나 『方藥合編』등의 한약서적을 공부함으로써 기본지식을 쌓았다. '약성가'는 각 약재의 기미(성질)와 효능을 4·3운율조의 칠언절구 형식으로서 작업 중에도 노래하듯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⁷⁾.

한편 종업원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일부 한의사나 한약업사들은 제자를 키운다는 생각에서 '한약한자'나 '약성가'를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즉 일일 학습량을 정하여 암기하도록 하고 다음날 이를 점검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진도를 유보시킨 채 계속하여 동일 내용을 학습토록 했다. 고참 사원들은 한의사나 한약업사의 처방내용이

6) 한의사의 경우, 광복 후 기존의 '의생'(醫生) 지위를 인정받아오던 중 1952년 국민의료법 제정과 더불어 동년 2월 19일 한의사 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았다[약령시부활추진위원회, 1984. 『대구약령시』(대구:경북인쇄소) 315, 한국사편찬위원회, 1994. 『한국사26-연표2-』(서울:한길사) 397]. 1960년대 이후 경희대(1965)와 원광대(1972), 동국대(1978) 등에 한의학과가 개설되면서부터 이러한 자격검정제도는 폐지되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사 국가고시제가 생겨났다. 한약방 경영자 또한 일제 강점기에 '한약종상'(漢藥種商) 제도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았으며, 광복 후에는 '한약업사'(漢藥業士) 제도에 의해 1959년 서울을 시작으로 1983년까지 지역별 검정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 받았다(약령시부활추진위원회, 1984. 『앞책』323).

7) '인삼'을 예로 들면, '人蔘味甘 / 補元氣(하고) // 止渴生津 / 調榮尉(라)'이다.

기록된 화제에 따라 여러 가지 약재를 작근하여 약을 짓고 첩약을 싸면서 고객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의 실무를 익혔다. 특히 가업을 계승하고자 하는 직계자녀나 친인척 종사원은 보다 긴밀한 전인적 인간관계 하에 비방 전수를 포함하는 특별한 도제식의 학습을 받았다. 종사원들은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약재의 절단과 건조, 보관 등의 관리방법은 물론 약재 이름과 기미, 효능, 감별법, 법제, 처방 등을 차례로 연마하였다. 역사가 깊은 한약방의 경우에는 출신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러 친목단체를 결성한 후 사제와 동문관계를 지속시키기도 하는데, 오랜 전통과 민족의약에 대한 자부심으로 대를 이어 가업을 계승해 나가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1999년 6월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가 조사했던 자료에 의하면(신전휘 2000 : 106), 약령시 한약업사 52명 중 17명이 선대로부터 가업을 계승(10명)했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계승(7명)시키고 있다. 한약도매상의 경우, 경영자 76명 중 25명이 선대로부터 가업을 계승(13명)하였거나 자녀에게 계승(12명)시키고 있다. 24명의 한의사 중에는 9명이 선대로부터 가업을 계승하고, 2명은 자녀에게 계승시키고 있다⁸⁾.

2. 비방과 한약재 감별지식

‘비방’(秘方)이란 한의약 전문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환자를 대하고 약을 다루어 오는 과정상 특정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의 결과 해박한 식견을 갖게 되어 높은 치료율을 나타내는 자신만의 비밀스런 처방지식을 의미한다. 특히 대구약령시는 오랜 역사와 가업 계승을 통한 비전(秘傳), 전문인의 밀집 등으로 특정 업소 중심으로 특수한 영역의 전문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어느 곳보다도 높다. 아울러 한약업사와 한약도매상들의 평균 한약경력이 각각 36년과 28년인 것처럼, 약령시 한의약 전문인들은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약재식별과 한약처방 등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경험과 지적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축적해 왔다.

약령시의 일부 사람들은 “비방이란 있을 수 없다”라든가 혹은 “비방이란 돌팔이들이나 가진다”고 하면서 비방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기도 한다. 이는 현실에 활용하는 처방 대부분이 기존의 한의약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기본 처방을 무시 내지 변형시킨 ‘비방’의 활용이 현행의 약사법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현행의 약사법에는 한약업사의 역할을 ‘기존의 한의약서에 수재되어 있는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거하여 여러 약재를 혼합판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따라서 비록 비방이 오랜 경험에 의

8) <대구한약방>의 최중대(69세)와 <광신한약방>의 이용식(65세) 등 2명의 한약업사는 조부 때부터 이 곳 약령시에서 100여년 동안 3대에 걸쳐 한약방을 경영해 오고 있다. 외에도 <중앙한약방>의 박재규(74세)와 <신성균한의원>의 신성균(84세), <모동의원>의 김현식(83세), <우신한약방> 김철수(53세), <창덕한약방> 정병목(70세), <부산한약방> 유성호(76세) 등도 약령시 내외에서 3대~4대에 걸쳐 한의약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

9) 약사법 제 37조 ③항.

한 지식의 새로운 발견 내지는 축적의 결과일지라도, 한약업사에 의한 비방의 활용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현행의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한약업사는 비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정법과 업권의 고유권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비방의 경험방적 특성으로 인한 과학적 검증의 결여로부터 기인한다. 하지만 아래의 사례처럼, 때로는 현대 의료기술에 의해서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약령시의 비방에 의해 거뜬히 치료되기도 한다.

〈표 1〉 대구약령시 주요 비방

업 소	경 력	비방영역	업 소	경 력	비방영역
A한약방	35년	위장병	J한약방	103년(3대)	경옥고
B한약방	58년	통풍	K한약방	89년(2대)	부인병
C한약방	45년	기관지염	L한약방	58년	장티푸스
D한약방	36년	정신신경병	M한약방	73년(2대)	위장병
E한약방	34년	디스크	N한약방	63년(2대)	위장병
F한의원	68년(2대)	담석증	O한약방	47년	통풍
G한의원	54년	부인병	P한의원	73년	장기능 저하
H한의원	44년	위암	Q한약방	46년	신경계통병
I한약방	41년	관절염	R한약방	68년	간질병

대구약령시에서 한의약업을 30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는 한방 경력자 중 일부 업소를 중심으로 조사된 비방을 정리하면 위 〈표1〉과 같다. 위의 〈표1〉에 나타나듯이, 대구약령시 여러 한방업소들은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을 비롯하여 위장병, 통풍, 정신신경병, 디스크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특화된 처방을 구비하고 있다. 때로는 한 집에서 3대와 4대에 걸쳐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비방이 지속적으로 전승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비방을 소유하고 있는 한방 전문인들은 오래 동안 한방업을 수행해 오면서 자신들의 비방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도 했다. 한약경력이 58년째인 한약업사 J씨(B한약방, 80세)는 십 수 년 전부터 다리가 저리고 시리면서 통증이 심한 이 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살이 썩어들게 되는데 양방으로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다리를 결국 절단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게 되고 결국 완치시켜 소중한 경험을 비방으로 축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인 약 8년 전 대구 Y대학병원 정형외과 직원인 K씨가 발가락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그를 찾아 왔다. 병원 의사들의 소

견에 의하면 치료를 위해서는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J씨는 자신의 오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관련되는 4종의 약을 기본으로 하고 몇 가지 독·극성약을 가미한 처방을 내려 2개월 동안 복용하도록 했다. 그는 약을 복용한 후 조금이라도 호전이 되면 다시 방문하라고 했는데, 2개월 후에는 환부에 고름이 멎고 새 살이 조금씩 돌아나는 등 놀라울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다시 약 한 제를 추가로 지어 복용하도록 했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끔히 나았다.

이상의 한약업사 J씨 사례처럼, 비방은 평생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터득한 소중한 개인적인 지적 발견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공적인 성격의 가치 있는 지식자원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일부 한의원에서는 비방을 활용하여 특허 치료약을 상품으로 제조하기도 한다. 최근의 일간지나 잡지를 통한 광고자료만 보더라도 서울 K, H한의원 등에서 한방 다이어트용의 경신보원(輕身補元)과 축농증 치료제인 생비환(生鼻丸) 등을 각각 특허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많은 상품들이 한방제제(韓方製劑)의 형태로 선전되면서 자가 업소와 해당 상품의 홍보를 피하고 있다. 대구약령시의 경우에도 일제 강점기부터 <김홍조한약방>과 <태창당한약방>, <제화당한약방>(현 <광신한약방>) 등에서 건위제인 천일영신환(天—靈神丸)과 중풍치료제인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궁중보약인 경옥고(瓊玉膏) 등의 한약을 각각 조제하여 널리 유통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소요자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업소의 특징인 자신의 비방을 특허상품으로 대량생산해 내기 어렵다. 아울러 비방은 한방 전문인 개인만의 경험방이므로 공유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사망과 동시에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약령시 각 업소의 비방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사례와 더불어 자세하게 채록한 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치료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임상 및 이론 양면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한방제제를 개발하거나 치료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 압과 당뇨, 중풍, 치매, 골다공증 등 현대의약으로 치료상의 한계를 갖는 난치성·만성·퇴행성 질환 부문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 대구·경북에서 추진 중인 ‘한방바이오 산업’ 계획 및 ‘한약효능검증원’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한약은 완제 양의약품과는 달리 학술적이고 실험적인 방법만으로는 그 진부나 품질의 우열을 확인 및 구별하기가 곤란하다. 다년간의 실무경험에 기초한 관능검사(오감으로 맛과 향·냄새·모양·색깔 등을 판별하는 검사)를 통해서만 품질의 등급뿐만 아니라 생산지와 생산시기, 가공방법, 건조 정도 등을 감별해 낼 수 있다. 동일한 종류의 약재일지라도 토양과 기후여건은 물론 오염물질의 흡입 정도에 따라, 그리고 가공과 보관, 수치의 정도에 따라 약성이 상이하다. 아울러 약재는 맛과 향, 냄새, 모양, 색깔 등에 따라서도 약성이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수많은 변수와 조건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약성의 정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나의 문제는 사람들의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약재 감별지식은 여태까지 현장경험을 통해서만 습득·활용·전승될 뿐 객관성 제고와 표준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나 기록 작업이 전무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교재 빈곤으로 인한 본초학 공교육의 부실화와 엄밀하고도 객관적인 준별기준의 부족으로 인한 학술적·대중적 신뢰를 제고하지 못함으로써 한의약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됨은 물론 한약관리를 포함한 한방정책의 수립과 추진 또한 어렵게 한다(박재용 2000 : 32-29).

따라서 수백 년의 역사를 지탱하며 민족의약을 전승시켜온 대구약령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약재 감별지식의 기록과 표준화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천 년 전통의 민족의약 전승지식을 후세에 온전히 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전통의약 발전의 신기원을 이를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350년에 걸쳐 민속의료 지식과 기능이 중층적으로 축적·전승되어 온 것은 물론 오랜 경력의 한의약 전문인이 밀집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지식이 농축되어 있는 대구약령시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오랜 경력과 식견을 갖춘 약령시 한약전문인을 ‘한약감별전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연구자(한약감별기록연구사)로 하여금 구술을 받아 기록하게 한다. 즉 약령시 한약재 도매시장 경락 약재 중 비중이 높은 품목 순위로 선정하여 성상과 맛, 냄새, 촉감 등에 따라 효능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구술-정리-감수’ 과정을 거친 기록 자료는 최종적으로 『한약재감별법』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한다(약령시보존위원회 2001).

한약재 감별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3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약령시 위상강화는 물론 사라져 가는 한약재 감별 전승지식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보존할 수 있다. 둘째, 한약관리의 정책적 기초자료 구축과 한약재의 품질 및 유통관리를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한약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우수한 품질의 한방제제 개발은 물론 국민건강 제고와 한의약의 대외적 신임도 상승에도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다.

IV. 전통 의약문화의 행위전승

대구약령시의 행위전승은 약령시의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사적 의의, 정신적 가치 등을 발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의 표상을 의미한다. 이는 관련되는 다양한 상징과 물상, 기예와 연행, 전승지식과 가치에 기초하여 전통 의약문화를 창출 및 공유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전승주체의 현실적 의도와 목적의 실천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승주체는 행

위전승을 통해 전통 의약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당위성 외에 집단의 내부결속 및 기존 가치의 재확인고 강화, 대외적 과시 등과 같은 현실적 의도와 목적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이를 위한 각종의 문화상징과 실재들이 소리와 연희, 물상, 언설, 서사 등의 다양한 매개기제를 통해 주기적으로 표현되므로 행위전승의 현장은 문화전승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대구약령시의 주요 행위전승으로는 350년의 약령시 개장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약령시축제’와 한약의 시조로 추앙 받는 염제신농(炎帝神農)을 추모하는 ‘약령제’를 들 수 있다.

1. 약령시축제

1658년 무렵부터 해마다 열리던 대구약령시는 개시 때마다 전국의 한의약업인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 약재를 사고팔며 인심과 문물을 전하던 축제 그 자체였다. 약령시 개시일이 다가 오면 여각과 객주집은 전국에서 몰려오는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으며 전국의 출신자 또한 매매할 약재관리와 운송 준비, 약가시세 타진 등으로 분주하였다. 개시일에는 약령시 동·서쪽에 커다란 아치형 술문을 세워 축제 분위기를 돋우었으며 한약재 매매 외 일용잡화점도 덩달아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남문 앞밖길’(영남대로)로 일컬어진 약령시 주변의 여러 음식점과 술집 등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봄벼 야간에도 밤이 깊어 가는 줄 모를 정도였다. 이러한 약령시 개장행사는 일제 강점기 일부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구성 안의 객사와 종로, 남성로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열려왔다. 하지만 일제는 약령시가 독립자금 모금과 비밀스런 연락 등 국권 회복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민족의식 양양의 거점이 된다는 판단에서 대구약령시에 대해 집요한 탄압을 가하다가 1941년 마침내 폐지시켜 버렸다. 광복 이후 약령시 부활 노력으로 다시 열리기도 했지만 625 전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채 상설 한약점(韓藥店) 위주로 그 양상이 변화되어 갔다.

그 후 약령시 부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1978년 8월 ‘약령시부활추진위원회’ 결성과 약령시 개장행사 개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오래 동안 단절되어온 대구약령시 개장 전통을 축제 형식으로 부활시켜 약령시의 맥을 이음과 동시에 약령시 한방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전승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8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 첫 행사에는 남성로와 동성로 3가 일대를 중심으로 한약방 44개소와 한의원 18개소, 한약상회 13개소, 기타 22개소 등 100여 한방업소가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다(약령시부활추진위원회 1984 : 218-219).

1978년부터 개최되어온 약령시 개장축제는 2004년 현재까지 27회의 연륜을 쌓은 셈인데, 아래 <표2>와 같이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박경용 2000a). 제1단계는 1978년 약령시 부활을 공포했던 제1회 행사부터 1987년까지의 10년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축제는 과거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단절되었던 약령시 전통을 축제라는 문화장치를 통해 상징적으로 복구하려

는 성격을 띤다. 이를 위해 원형의 약재를 가득 담은 가마나나 마대를 업소 앞 도로에 진열 ('한약건재전시')하거나 '한약재절단경진대회', '업소별 첩약전시' 등의 행사를 통해 예전의 약령시 광경을 연출하였다. 아울러 축제기간도 3~30일 동안 비교적 길게 설정함으로써 약령시 전통의 부활을 널리 알리려고 했다.

제2단계는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11년 동안의 축제를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으로 약령시 부활을 위한 기반이 상당히 구축되었다. 특히 1993년 약령시보존회의 문화법인 인가와 약령시전시관 개관을 통한 <한약재도매시장>과의 통합은 숙원사업의 해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약령시 부활의 당초 목적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으므로 이제는 약령시의 본원적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이를 어떻게 잘 보존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한 과제였다. 축제양상도 기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령시 보존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발굴하여 선보임으로써 질과 양의 측면에서 한층 진일보하였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고풍식약괘(藥掛)'와 '수입한약재전시', '전통차·약차무료제공', '한약재중량맞추기', '약초(엽)채취대회', '한방무료진료·보약증정', '약초사진전시' 등 약령시의 일상생활을 조명하고 한의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시기에는 신규행사가 많이 발굴되고 한의약 관련 주제행사 비율이 높아짐은 물론 지역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 또한 증대하였다.

<표 2> 대구약령시 축제의 발전단계

단계(회)	기간	개최 월 (일수)	주요 행사	비고
1단계 (1회~10회)	1978년 ~1987년	10월 (3~30일)	한약건재(째)전시, 병별처방약전시, 업소진열장설치, 업소별첩약세분전시, 한약재절단경진대회 쌍화차 진열·판매	약령시부활추진위원회결성(1978년) 한약재도시장 개장(1982년) 한약수출입조합 설립(1987년)
2단계 (11회~21회)	1988년 ~1998년	10월 (3~10일)	고풍식약괘, 수입한약재전시, 한약초분재전시, 어린이보약증정, 인삼전시·수삼판매, 전통차·약차무료제공, 한약재중량맞추기, 약초(엽)채취대회, 한방무료진료·보약증정, 약초사진전시	전통한약시장 고시(1988년) 문화법인 인가(1993년) 약령시전시관 개관(1993년) 『약령춘추』창간(1995년)
3단계 (22회~27회)	1999년 ~2004년	5월 (5~10일)	약초꽃동산조성, 약초슬라이드강연, 한약술·요리전시, 한약달이 기시연·탕액즉석판매, 우리약초 천연색깔전, 약썰기대회, 청년허준선발대회, 한약재경매쇼, 약썰고약찜싸서가져가기, 약령퀴즈, 나랏님보약진상	5월 행사(1999년) 문화관광축제 지정(2001년~) 약초식물원 조성(2001) 약령시테마거리 조성(2002) 약초공원 조성(2002년)

제3단계는 ‘약령시종합발전계획’ 수립(1999년 12월) 및 그 실천에 조응하여 축제시기를 기존의 달구벌축제 기간인 10월에서 5월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개최(2000년)함으로써 축제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받는 등 대구약령시 축제가 한층 도약하게 되는 2000년 이후의 시기이다(박경용 2000a: 3-21). 1999년의 22회 축제는 최초로 기존의 가을행사(10월) 일부를 봄(5월)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낸다. 기존의 가을행사는 예전의 추령시(秋令市)를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달구벌 종합축제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축제의 정체성 확보와 대외적 홍보 등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22회 축제 때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함은 물론 ‘약초꽃잔치’ 행사를 주제 행사로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약초 꽃이 만발하는 5월에 행사를 시작하였다. 1999년의 5월 행사에 대한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2000년 축제부터는 모든 행사를 봄 행사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약찜짜기’와 ‘약초(엽)채취대회’ 등의 체험행사를 비롯한 한의약 주제행사를 대폭 강화함은 물론 행사진행의 밀도도 한층 높여 나갔다.

이상과 같은 27년의 약령시축제 행사는 대구약령시의 역사와 전통 및 약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조명하여 전승시키는 중요한 매개가 되어왔다. 축제를 통한 약령시 한방문화의 전승양태는 관련 유물과 자료, 약초, 약재, 한약 등의 유형적인 것과 지식과 기능, 의례절차, 역사, 서사, 인물의 행적 등과 같은 무형적인 것을 망라한다. 때로는 약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가 다양한 상징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약찜짜기체험’과 ‘한약달이기시연’, ‘병별처방약전시’, ‘약재무게알아맞추기대회’, ‘약썰기대회’, ‘고풍식약패’ 등의 행사들이 이에 속한다. ‘약령제’와 ‘농약경연대회’, ‘어린이한복자랑’, ‘전통차시연·다례시범’, ‘짚·풀공예전시 및 체험’ 등의 행사들은 약령시축제를 통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가능하게 해준다.

대구약령시축제는 한의약 테마의 축제 특성과 관광 상품성을 높이 평가받아 정부로부터 2001년부터 연속적으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으로써 전통 의약문화 전승의 보루가 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의약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인근의 여러 역사문화유산(고령 대가야문화·경주 불교문화·안동 유교문화)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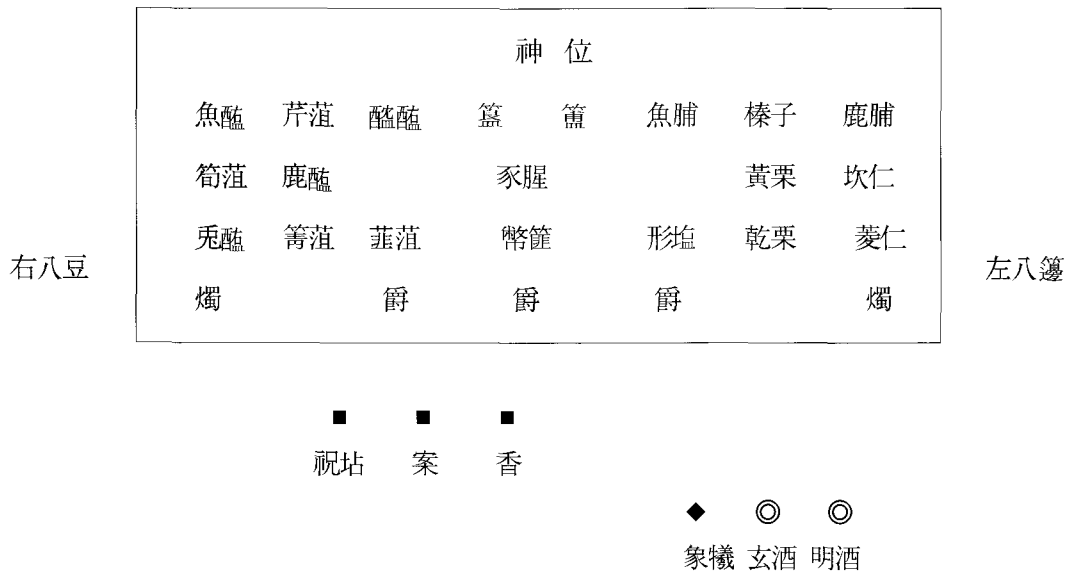
2. 약령제

약령제(藥令祭)는 고유제(告由祭) 형식으로 약령시축제 때마다 매년 초두행사로 실시되어 왔다. 약령제는 약령시 개장 사실을 한약의 시조인 염제신농에게 알리면서 약령시 발전은 물론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이다. 이는 오랜 이전부터 약령시 개장에 즈음하여 경상도 관찰사가 약령시의 성공적인 개장을 신에게 빌고 다례를 행하던 전통을 계승·발전

시킨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약령시보존위원회가 1993년 정부로부터 문화법인으로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약령제 전승의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약령제보존위원회’라는 공식적인 법인명칭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제의절차가 일반적인 유교제사와 왕제(王祭)의 혼용 형식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왕제식으로 일원화시켰다. 이것은 피봉제자인 염제신농이 중국 고대 3황(皇)의 한사람일 뿐만 아니라 약령제의 본질에 충실하고 그 원형을 고증·보존함은 물론 제례의 주체인 대구약령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날 것의 제물에다 쌀과 조를 찌서 밥을 만들고, 제상에 수저를 올리지 않으며, 신위 정면으로 절을 하지 않고 동쪽에 서서 서쪽을 향해 4배하는 이른바 ‘곡배’(曲拜) 등이 변화된 주요 제의절차들이다. 병풍형태의 흘첩(笏貼)을 새로 제작하고 제관의 복장과 제의도구 또한 금관조복 및 궤(篋)와 보(篋) 형식으로 격식에 맞게 바꾸었다(박경용 2000b : 52-53).

〈그림 1〉 약령제 진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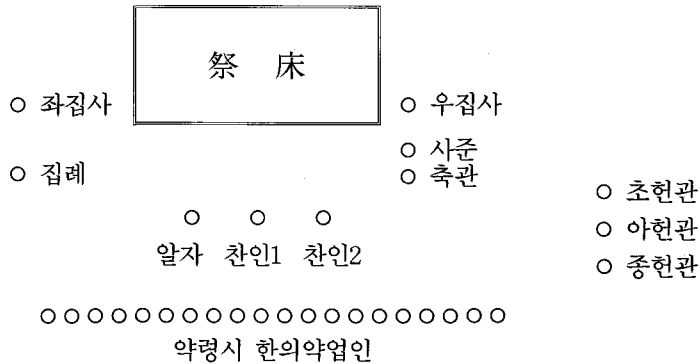


약령제 때 사용하는 제물은 모두 날 것으로서 약으로 쓰이는 동·식물성이 대부분이다. 진설음식 준비를 책임진 유사는 사람들이 아직 손대지 않은 깨끗하고 싱싱한 제물을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 장을 본다. 제물 장만과정에 있어서 팔다가 남은 물건을 구입하는 일과 값을 깎는 행위는 금기로 되어 있다. 제물의 종류와 진설방식은 위 〈그림1〉의 ‘약령제 진설도’와 같다. 제물의 위치는 신위가 놓인 북쪽을 기준으로 왼쪽을 동쪽, 오른쪽을 서쪽으로 한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왼쪽의 8개 제기(左八豆)에는 어포(魚脯)와 녹포(鹿脯), 형염(形塩) 외에 진자(榛子), 황율(黃栗), 건율(乾栗), 감인(坎仁), 능인(菱仁) 등 약재로 쓰이는 열매를 진설한다. 나무로 홈을 파서 만든 오른쪽의 8개 제기(右八豆)에는 간장에 졸인 어해(魚醢)와 염해(醢醢), 녹해(鹿醢), 토해(兔醢) 등의 동물성 제물과 근저(芹菹), 순저(筍菹), 청저(菁菹), 비저(菲菹) 등의 식물성 제물을 진설한다. 한편 중앙에는 신위를 중심으로 쥘 쌀(簋)과 조(簞), 날 것의 돼지고기(豕腥), 모시를 담은 폐비(幣篚) 등을 차례로 놓는다. 약령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이를 기본으로 하되, 녹포 대신 육포, 토끼고기 대신 닭고기(鷄肉)를 쓰는 등 사정에 따라서는 유사한 제물로 대응할 수 있다¹⁰⁾.

약령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집례(執禮)와 삼헌관(三獻官)을 비롯하여 집사(執事), 알자(謁者), 찬인(贊引), 축관(祝官), 사준(司尊) 등의 제관과 약령시 한의약업인, 일반 참여자들로 나뉜다. 약령시 한의약업인들은 제장에 도열하여 절로서 예만 올리는데 비해, 제관들은 절차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제의를 직접 주관한다. 아래 <그림2>에 나타나 있는 제관들의 제장 위치와 관련하여 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약령제 제관 배치도



10) 대응품은 아래와 같다.

<약령제 진설제물의 대응품>

기 본	대 응	기 본	대 응	기 본	대 응
鹿脯	肉脯	簋	外圓	醢醢	肉
魚脯	乾脯	榛子	柏子	芹菹	芹(미나리)
鹿醢	豚肉	坎仁	胡桃	筍菹	桔硬
魚醢	石魚	乾栗	生栗(대추)	菲菹	菲(정구지)
黃栗	生栗	形塩	白塩	菁菹	菁(무우)
簋	外方	菱仁	銀杏	兔醢	鷄

집례는 제례절차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령제 홀기를 부르면서 제례의식을 주도해 나간다. 3명의 헌관은 신에게 헌주(獻酒)와 예를 올리는 핵심 제관들이다. 초헌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대구광역시장이나 중구청장 등 제례에 참여한 관료 중 계급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 맡는다. 아헌관과 종헌관은 나이순서에 따라 맡는 것이 일반적인데, 약령제의 경우에는 내빈 예우 차원에서 관내 국회의원 등이 아헌관을 그리고 대구시한의사회 대표 혹은 한약업사 대표가 종헌관을 각각 담당해 왔다. 축관은 대축(大祝)이라고도 일컫는데, 초헌례 때 초헌관의 헌작 후 신위 정면으로 향한 그의 왼쪽에 동향으로 엎드린 채 신에게 간절한 기원의 내용을 담은 축문을 낭독한다. 알자는 초헌관을 안내하고, 2명의 찬인은 아헌관과 종헌관을 각각 안내한다. 제단 좌우에 위치하는 2명의 집사는 헌관의 헌작(獻爵)과 음복 및 망요(望燎)를 도와준다. 한편 사준은 술 단지를 관리하면서 술을 잔에다 따라주는 일을 한다.

이상의 제관 외에도 잔에다 술을 떠 헌관에게 건네는 전작(奠爵)과 헌관으로부터 술잔을 건네받아 신위 앞에 올리는 봉작(奉爵), 향로 수발자인 봉로(奉爐), 헌관의 향헌(香獻)을 도와주는 봉향(奉香) 등의 여러 집사자가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령제의 경우 편의상 이들을 별도로 두는 대신 좌·우집사가 대행한다.

약령제는 제례악 연주와 집례자의 창홀(唱筊)에 따라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된다. 약령제 절차는 집례창홀(執禮唱筊)과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飲福禮), 망요례(望燎禮) 순으로 구분된다. 음식진설이 완료됨과 더불어 제관을 비롯한 모든 참례자들이 입장하면 사회자의 제례 시작을 알리는 말과 함께 먼저 집례와 축관이 네 번 절한다. 집례는 곧바로 홀기를 부르면서 제례를 주도해 나가는데, 알자와 찬인을 포함한 모든 집사자들이 이어 4배를 올린다. 그런 다음 축관이 신위 덮개를 벗기고 집사자들이 진설된 음식을 덮었던 종이를 걷어낸다. 이어 알자와 찬인이 헌관들을 안내하여 제례의 시작을 알려줌과 동시에 헌관 이하 모든 참례자들이 4배한다.

전폐례는 대나무 그릇에다 폐백을 담아 신에게 정성스럽게 올리는 절차이다. 이전에는 모시 1자 정도를 준비했으나 일회성 용도인데다 경비문제 등으로 인해 요즘은 창호지를 대신하기도 한다. 초헌관이 신위 앞에 나와 향을 세 번 불사른 후 집사의 도움으로 폐백을 신에게 바친다.

초헌례는 제관의 중심이 되는 초헌관이 신에게 술잔을 올리고 예를 다하는 절차이다. 알자의 안내로 신위 앞에 선 초헌관은 사준이 떠주는 술을 우집사(佑執事)를 통해 건네받은 후 다시 좌집사(佐執事)를 통해 신에게 올린다. 그런 다음 축관이 아헌관의 좌측에 동향으로 엎드려 축문을 고한다. 축문을 통해서는 한약의 시조인 염제신농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온갖 약을 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대구약령시의 번성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한다¹¹⁾. 아헌례와 종헌례는 아헌관과 종헌관이 동일한 방법으로 신께 차례로 예를 올리는 절차이다. 단 독축은 하지 않는다.

음복례는 제관들이 봉헌했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신을 추모하는 과정이다. 홀기에 따라 초헌관이 음복장소에서 서쪽을 향해 앉으면 축관이 북향한 상태에서 집사들의 도움으로 술과 안주를 받아 건넨다. 음복 후 삼헌관이 함께 4배하고 이어 헌관 이하 모든 참례자들이 다시 한번 더 4배한다.

망요례는 제례에 사용된 축문을 분축장(焚祝場)에서 불사름으로써 제례의 경건함을 표현하는 절차이다. 일반 기제사의 경우에도 제사 후 지방(紙榜)과 축문 등을 불사르는데, 이는 신성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물건들이 잘못 간수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초헌관이 분축장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서고 축관이 제단으로부터 축판(祝版)을 옮겨와 서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축문을 불사른다. 알자와 찬인은 헌관들에게 다가가 제례절차가 모두 끝났음을 알린 후 이들을 제장 밖으로 안내한다.

축관이 신위 덮개를 다시 씌우고 집사들은 궤와 보의 뚜껑을 닫는다. 축관과 모든 집사들이 함께 4배를 하고 이어 집례가 마지막으로 4배를 함으로써 모든 제례절차가 비로소 마무리된다. 이상과 같은 약령제례 절차는 약령제 홀기 속에 순서와 절차가 적시되어 있다.

V. 맺음말

약령시는 의약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사회에서 약재수집의 효율성을 기할 목적에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개시되었던 약재 전문시장이다. 조선시대에 대구를 비롯하여 전주와 공주, 진주, 의주, 개성 등 전국 10여 곳에 약령시가 개설된 바 있는데, 이 중 대구약령시를 제외한 대부분은 차례로 폐지되어 버렸다. 하지만 대구약령시는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염려 때문에 강제로 폐지된 기간(1941년~1944년)을 제외하고는 350년 동안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대구약령시는 보건·경제사적 측면은 물론 한방문화의 전승과 교육 및 관광자원화 등 여러 차원에서 커다란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일경에 붙잡혀 고초를 당한 독립투사들을 치료해 줌은 물론 독립자금 지원과 연락의 거점이 되는 등 국권 회복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민족의 정기와 주체성을 구현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다.

약령시 한방문화 전통은 우리 선조들의 민속의약에 대한 인지방식과 생활경험의 표상으로

11) 〈藥令祭 祝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檀君紀元○○○○年歲次○○×月○○朔××日○○大邱廣域市長○○○//敢昭告于//炎帝神農大帝之 神恭惟大帝降臨下土嘗百施藥蒼生是濟惟茲大邱藥市大都靈材集散普及邦家今以吉辰齋誠祝壽, 神其降佑有昌有助謹以清酌犧牲百拜祝頌于//神向//饗

서, 민속문화의 하위영역에 해당한다. 달리 말하면, 약령시 한방문화는 약재의 선별·정선·보관·운송·유통, 한약제조, 질병치료 등 약령시의 고유 기능과 관련한 기술과 기능, 사상과 지식, 조직과 도구, 유물과 자료, 행위양식과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대구약령시는 350년 동안 약령시 문화전통을 축적해 왔지만, 문화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지 못했다. 특히 상권쇠퇴에 따른 약재유통 기능의 점진적인 약화와 계승 인력의 단절은 약령시의 향후 존립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약령시 한방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인식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민속의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생각에서 대구약령시를 중심으로 한의약과 관련되는 유·무형 전승문화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대구약령시의 유·무형 전승문화는 약령시전시관과 관련 업소에 전시 혹은 소장되어 있는 유물과 자료를 포함하여 행위전승인 약령시축제와 약령제, 관련 기능과 기술지식 등을 포함한다. 이들 중 일부는 세인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미 유실되었거나 혹은 구석에 방치되기도 하고, 일부는 축제행사나 건물 내의 전시를 통해 무대화되거나 박제화된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재 감별지식이나 비방과 같은 일부 무형의 지적자산들은 장기간의 경험에 의해 개별적으로 획득됨은 물론 대단히 비의적(秘意的)인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사멸과 함께 소멸해버리기도 한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한약업사 시험제도가 기능을 상실하여 평균 한약경력이 36년에 달하는 50여 명의 한약 전문인 대부분이 고령(평균 65세)이고 그 기능과 지식을 계승해 나갈 인력이 없다는데 있다. 한약학과 출신의 한약사가 2000년부터 배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수가 극히 적고 한약방 개업을 통한 약령시 정착의지가 희소할 뿐만 아니라 약령시 전통을 이어나갈 만큼의 한약경력을 쌓는데도 최소한 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약령시에서 오래 동안 한약업에 종사해온 90여 명의 한약도매상(평균 한약경력 28년) 또한 제도적 불합리로 인해 한약업사의 역할을 계승하여 주체적으로 약령시 전통을 이어나갈 처지에 있지 않다.

대구약령시에는 오랜 경력을 지닌 50여 명의 한약업사(한약방 경영자)를 비롯하여 처방과 치료, 유통, 제탕·제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질의 수많은 한의약 전문인들이 밀집해 있다. 대구약령시 전통에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백 년 동안 동일한 공간에서 이들을 통해 민속의약 전통이 지속적으로 축적·계승되어 왔다는데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이들의 생활 경험과 기억들을, 그리고 관련 물증들을 시·공간적 차원에서 수집·분류·해석해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차원으로 존재하는 유·무형의 민속의약 문화를 효율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필자는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약제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한약재의 도·소매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내부혁신을 통해 약령시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한다. 둘째, 약령시축제를 대구를 대표하는 이미지축

제로 승화시킴으로써 민속의약 문화의 지속적인 발굴과 전승을 위한 매개로 활용한다. 셋째, 대구약령시의 지식자원과 이미지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자원을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한방바이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기존의 약령시전시관을 한의약 문화전승관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약령시와 한의약문화를 집대성하여 보존함과 동시에 약령시 테마거리와 보신·치료·체험 등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한방 관련 관광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약령시와 한의약 문화의 재생산과 이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관광과 교육자원화를 도모한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한약업사의 배출이 어려운 실정에서 한약도매상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약령시 전통을 계승해나는데 필요한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해주는 일이다. 350여 한방 관련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남성로 일대를 '약령시특구'로 지정하여 경제적, 제도적, 행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약령시 전통을 계승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병탁, 1992. 『정통대구약령시』(경산 : 성암출판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민간의약』(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6).
- 김광일, 1972. 「한국 샤머니즘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11(2).
- 김두중, 1968. 『한국의학사』(서울 : 탐구당).
- 김준권, 1994. 「환병을 통해본 민속의료관념과 관행-경상북도 금릉군 대덕면 덕산리의 사례를 중심으로-」(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논문).
- 김성례, 1978. 「한국농촌의 전통의료문화와 그 변화의 수용 : 농촌 육아과정의 의료인류학적 고찰」, 『인류학논집』(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4, 3-57.
- 김순미, 1995. 「질병의 담론과 경험간의 괴리와 매개-당뇨병 관리를 위한 자보모임을 중심으로-」(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태곤, 1983. 「민간의료의 실태와 원리-신양치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연구』(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 51-61.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민간의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남편-』, 331-335.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민간의료 및 금기」,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편-』, 325-386.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5. 「민간의료 및 금기」,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청남도편-』, 314-336.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민간의료 및 금기」,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청북도편-』, 226-246.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민간의료 및 금기」,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편-』, 246-267.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민간의료 및 금기」,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도편-』, 146-152.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0. 「민간의료 및 금기」,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황해·평안남북도편-』, 151-162.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민간의료 및 금기”, 198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북도편-』, 145-152.
- 박경용, 2000a. 「대구약령시 축제의 전개과정과 의의 및 과제」, 『향토문화』(대구향토문화연구소) 15, 1-38.
- , 2000b. 「전통의 생산과 소비 기제로서의 축제- 2000대구약령시축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류학연구』(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10, 11-31.
- , 2001a. 「대구약령시의 문화사적 의의와 가치」, 『향토문화』(대구향토문화연구소) 16, 1-42.
- 외, 2001b. 『대구약령시 한방문화 연구』(대구 : 대구광역시·약령시보존위원회).
- 박정석, 1991. 「열성풍토병 환자의 의료이용과정에 관한 연구-의료인류학적 접근-」(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재용, 2000.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한의약계의 역할」, 『대구약령시와 한의약 발전방안』(대구 : 대구광역시·약령시보존위원회), 17-61.
-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 2001. <한약재 감별법 기록사업 계획(안)>.
- 약령시부활추진위원회, 1984. 『대구약령시』(대구 : 경북인쇄소).
- 손흥렬, 1988.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 연구』(서울 : 수서).
- 신전휘, 2000. 「한의약계 발전과 대구약령시의 미래」, 『대구약령시와 한의약 발전방안』(대구 : 약령시보존위원회), 93-123.
- 윤순영, 1978. 『현대의료와 한국 농촌의 의료문화 : 의료인류학적 고찰』(이화여대 의료원 보건위원회).
- 이덕일·이희근, 1999. 「조선의 무당은 왜 의사역할까지 했을까」,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②』(서울 : 김영사), 197-204.
- 장철수, 2000.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서울 : 민속원).
- 전경수, 1983. 「서남해 도서지역의 풍토병: 의료인류학적 접근」, 『한국문화인류학』15, 275-280.
- 최길성, 1984. 「샤머니즘의 입장에서 본 정신건강의 개념」, 『정신건강연구』 2, 1-11.
- 한국사 편찬위원회, 1994. 『한국사26-연표2-』(서울 : 한길사).
- 한상복, 1977. 「한국인-그들의 생활원리와 민간의료-」, 『의맥』11, 16-24.
- 文定昌, 1941. 『朝鮮의 市場』(東京 : 日本評論社).
- Spradley, James P., 1988. Participant Observation(이희봉 역,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 방법』, 대한고과서주식회사).

Inheritances of Folk Medicine and Hanbang Culture of Daegu Yangnyongshi(藥令市, Medicinal Herb Markets)

Bak, Gyung-yong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various aspects and its meanings of Daegu Yangnyongshi Hanbang(韓方; traditional herb medicines) culture being handed down 350 years ago for understanding korean folk medicine.

Yangnyongshi(藥令市; Medicinal Herb Markets) Hanbang culture is consisted of various material evidences, knowledge and skill, norms, events of behaviour concerning with living activities of members in Daegu Yangnyongshi. The material evidences of Daegu Yangnyongshi being handed down are exhibited and owned by the Yangnyongshi Exhibition Hall and various Hanbang clinics and shops in Yangnyongshi. The knowledge and skill of Daegu Yangnyongshi being handed down contains management of medicinal stuffs, compounding of a korean herb medicines(韓藥; Hanyak), writing of a recipe, healing etc.. Of all, we must especially pay attention to a secret recipe and discernment capacity of medicinal stuffs so as to development for healing technology and publishment for education. Daegu Yangnyongshi festival and Yangnyong sacrificial rites(藥令祭) are worth notice as the annual events for being handed down behaviour inheritances concerning with everyday activities of members in Daegu Yangnyongshi.

The planning of the way for successive reservation and inheritance of this important folk medicine concerning with everyday activities of members in Daegu Yangnyongshi is needed to us for future.

[key word] Daegu Yangnyongshi(medicinal herb markets), folk medicine, material evidences of folk medicine, knowledge · skill inheritances of folk medicine, behaviour inheritances of folk medicine.